

朝鮮時代 「孝經」의 刊行과 그 刊本

Printing and Printed Books of *Hyo-gyeong*(孝經) in
Joseon dynasty period

이 재 영(Lee, Jae-Young)*

◁ 목 차 ▷

- | | |
|---------------------|--------------------|
| 1. 서론 | 3.2 조선시대 「孝經」의 간행 |
| 2. 한국의 효사상 전개와 관련문헌 | 3.3 「孝經諺解」의 성립과 간행 |
| 2.1 三國·高麗時代 | 3.4 「孝經大義」의 성립과 간행 |
| 2.2 조선시대 | 4. 결 론 |
| 3. 「孝經」의 성립과 간행 | <참고문헌> |
| 3.1 「孝經」의 성립 | |

< 초 록 >

조선사회에서 효는 유교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사상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던 관념이었다. 따라서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孝經」과 「三綱行實圖」와 같은 윤리서를 간행하여 보급해왔다.

이 연구는 「孝經」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더불어 조선시대에 간행된 「孝經」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의 효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윤리서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孝經」이 국내에 전래된 시기와 경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삼국시대에 이미 국가교육기관의 필수교육 과목으로 「孝經」을 채택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최소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전래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책판목록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국내에 전래된 孝經類는 「孝經」과 「孝經大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孝經大義」는 주자의 뜻이 담긴 것으로 성리학이 중심이던 조선사회에서 주로 많이 읽혔다. 따라서 기록에서 나타나는 「孝經」은 대부분 「孝經大義」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孝經類의 간행지역은 중앙 관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간행되었다.

要語 : 孝, 孝經, 孝經諺解, 孝經大義, 孝經纂註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대학원(starwars2@hanmail.net)

접수일: 2007년 12월 1일 최초심사일: 2007년 12월 3일 심사완료일: 2007년 12월 20일

<ABSTRACT>

Hyo(孝) in the Joseon society was commonly emphasized in several social ideas. Therefore, to supply filial piety widely, the Books of Ethics such as 「Hyo-gyeong(孝經)」 and 「Samgangaengsildo(三綱行實圖)」, etc. were published and supplied.

This study is aimed at the understanding of the consciousness of Hyo(孝)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the serving to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related to Hyo(孝)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books concerning Hyo(孝) published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It's rather hard to certify what period and what routes 「Hyo-gyeong(孝經)」 was introduced into our land due to the lack of tangible records as yet, but it is estimated that the Book was introduced at least before the era of the Three States or unified Silla based on the records saying that the Book was adopted as a compulsory course of the national education institution during the era of the Three States(三國時代) already.

Through the records revealed in bool plate catalogs, The book of Hyo(孝) introduced into our land was 「Hyogyong(孝經)」 and 「Hyogyong-Daeui(孝經大義)」 and their publication was not limi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l through the country.

Key words : Hyo(孝), Hyo-gyeong(孝經), Hyogyong-DaeUi(孝經大義)
Hyogyong-Eonhae(孝經諺解), Hyogyong-Chanju(孝經纂註)

1. 서론

조선시대에서 ‘孝’는 정치이념이었던 性理學, 즉 儒敎는 물론 여러 사회사상과 佛敎에서까지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효는 단순히 부모와 조상에 대한 개인윤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孝悌忠信’, ‘忠孝節義’ 등과 같이 ‘忠’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국가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효의 이념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孝經」, 「小學」과 같은 倫理書와 ‘三綱五倫’과 관계되는 儒家書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으며 「佛說大報父母恩重經」, 「佛說大目連經」을 비롯한 불교의 윤리서에서도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불교나 유교에 비해 크게 주목 받지 못한 도교에서도 三聖寶典, 太上感應篇圖說諺解 등의 道家書를 통해 효를 강조하였다. 18세기 후반이래로 조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西學의 경우에도 「성찰기략」, 「신명초형」과 같은 서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효의 이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효는 조선시대의 개인윤리에서부터 사회윤리와 사상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효 관련 서적 중 기본 경전인 孝經의 성립과 전개 과정 및 간행기록,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석서의 간행과 간본을 통하여 孝經의 학문적 정립 과정과 국내에서의 전파 및 유통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한국의 孝사상 전개와 관련 문헌

2.1 三國·高麗時代

三國 가운데서도 고구려에서 최초로 효 사상과 관련된 유학 교육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에는 귀족자제를 교육하기 위해 小獸林王 2年(372)에 설립한 太學¹⁾과 평민자제를 교육하는 扁堂²⁾이 있었다. 태학의 교육 내용은 국내

1)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小獸林王二年條. “立太學 教育子弟.”

기록에는 전해지지 않지만 「北史」³⁾, 「舊唐書」⁴⁾ 등 중국의 역사서를 통해 그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경당의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舊唐書 에 五經과 史書를 교육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태학에서도 유교 경전인 五經에 대한 교육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유교이념에 입각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인 태학을 설립한 것을 통해 유교가 이미 고구려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제는 유학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舊唐書 에 五經에 대한 기록이 있다. 또한 博士 제도가 있어서 經典에 능통한 사람을 五經博士라 하여 일본에 파견하고 교육⁵⁾을 하는 등 유교를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경우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儒學을 수용했지만 통일 신라 때에는 國學에서 五經을 근간으로 하여 論語 와 孝經 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 교육하였다.⁶⁾

고려의 國敎는 불교였다. 그러나 고려는 유교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고려 사회의 정신적 기반으로 유교와 불교를 병립하였다. 불교는 정신생활을 위한 종교로 삼고 유교는 齊家와 治國을 위한 하나의 학문으로 삼은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유교와 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崔承老의 상소문⁷⁾과 成宗이 十二牧에 경학박사를 두고 교서를 내린 것⁸⁾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지배적인 사상은 불교였으므로 효의 유교적인 특징에는 한계가

2) 「舊唐書」卷199上. 列傳 卷149上 高麗條. “各於街衢造大屋 謂之扁堂.”
3) 「北史」卷94. 列傳 第28 高句麗傳. “書有五經 三史 三國志 晉陽秋.”
4) 「舊唐書」卷199上. 列傳 卷149上 高麗條. “其書有五經及史記 漢書 范曄後漢書 三國志 孫盛晉春秋 玉篇 字統 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5) 김현구 등,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서울: 一志社, 2002), 272.
6) 三國史記 卷十, 新羅本紀十 元成王, “四年, 春, 始定讀書三品 以出身 讀春秋左氏傳若 禮記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前祇以弓箭選人 至是改之.”
7) 崔承老, 時務冊 28條, 20條, “行擇教者修身之本行儒教者異國之源修身來世之資治國乃今日之務.”
8)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1年 7月, “於十二牧 各差遣經學博士一員醫學博士一員.....懷材抱器事君王 則忠之始也 立身揚名 顯父母 則孝之終也.”

있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忠孝’의 윤리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2.2 조선시대

조선은 고려 말에 전래된 성리학적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하여 귀족과 불교계의 폐해와 민란 등 사회적 불안 요소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정치적인 이유로 효는 더욱 실천적인 행동규범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는 효를 인간윤리의 기본으로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유교의 최고 교육기관인 成均館이나 四部學堂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와 서원을 세워 유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家禮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교적 체제를 정비하면서 반윤리적인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經國大典」과 같은 법전을 편찬하여 유교국가의 체제를 만들었다. 유교의 생활화를 위해서 전국에서 뛰어난 孝子·烈女 등을 뽑아서 표창하고 향약과 같은 제도를 통해 유교를 토착화하고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건국이념을 유교로 삼으면서 조선은 사회규범, 가정제도,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유교에 기반을 두게 하였다. 따라서 각 개인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윤리면에서도 ‘三綱’과 ‘五倫’이 강조되었으며 유교의 사상적 특징은 三綱五倫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刑法典인 「大明律[直解]」를 보면 그 당시 효를 어느 정도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 있다.⁹⁾

9) 大明律直解 卷19. 刑律 人命 謀殺祖父母父母條. “凡謀殺祖父母 父母及期親尊長 外祖父母 夫 夫之祖父母 父母 已行者皆斬 已殺者皆凌遲處死.....”
 「大明律直解」卷20. 刑律 鬪毆 毆祖父母父母條. “凡子孫毆祖父母父母及妻妾毆夫之祖父母父母者皆斬 殺者皆凌遲處死 過失殺者杖一百流三千里 傷者杖一百徒三年.....”

3. 「孝經」의 성립과 간행

3.1 「孝經」의 성립

3.1.1 「孝經」의 편찬

「孝經」은 孔子와 그의 제자인 曾子가 효에 대해 서로 問答을 주고받은 것을 대화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孝經」은 처음부터 ‘經’자를 서명으로 붙였다. 반면에 「詩經」, 「書經」, 「易經」과 같은 유가경전들은 처음에는 「詩」·「書」·「易」으로만 불렸다. 즉 이들은 원래 경전의 성격을 가진 글이 아니었지만 공자가 이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해석을 붙였기 때문에 ‘經’으로서 그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孝經」이라는 서명의 유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前漢의 孔安國, 後漢의 班固 등 漢代의 학자들은 효를 모든 것의 근본으로 이해하고 「孝經」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¹⁰⁾

3.1.2 「孝經」의 저자와 성립시기

3.1.2.1 저자와 성립시기

「孝經」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孔子가 지었다¹¹⁾는 설은 班固의 「漢書」〈藝文志〉¹²⁾나 鄭玄의 「六藝論」, 「白虎通義」, 「孔子家語」 등에서 주장하고 있다.

둘째, 曾子가 지었다¹³⁾는 설은 「史記」의 〈仲尼弟子列傳〉¹⁴⁾에 근거하고 있다.

10) 「古文孝經」序. “孝經者 何也 孝者 人之高行 經常也.....”
「漢書」〈藝文志〉 孝經類. “夫孝 天之經 地之義 民之行也 舉大諸言 故曰孝經.....”
11) 金學主, 「新完譯 孝經」(서울: 明文堂, 2006), 21.
12) 朴一峰, 「孝經」(서울: 育文社, 1989), 15.
13) 「史記」〈仲尼弟子列傳〉. “曾參南武城人.....孔子以爲能通孝道故授之業作孝經死於魯.”

셋째, 공자의 제자들이 지었다¹⁵⁾는 설은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주장하고 있다.

넷째, 증자의 문인들이 지었다¹⁶⁾는 설은 朱子の 「孝經刊誤」에 “孝經은 공자와 증자의 문답으로 증자의 문인이 이를 기록한 것이다.”¹⁷⁾라 하여 증자의 문인들이 지었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공자의 손자인 子思가 지었다¹⁸⁾는 설은 「困學紀聞所引馮椅說」에 근거하고 있다.

여섯째, 漢儒의 僞作¹⁹⁾이라는 설은 姚際恒의 「古今僞書考」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여러 설 가운데 아직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진 주장은 없다.

「孝經」의 처음 작성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기원전 213년 진시황의 焚書坑儒 이후 前漢 武帝의 동생인 恭王이 궁궐을 넓히는 과정에서 공자의 옛집에서 발견한 22章의 孝經은 춘추전국시대의 古文으로 쓰여 있어 이를 古文孝經이라 한다.

이와 별도로 분서갱유 당시 顏芝라는 사람이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 「孝經」을 감추었는데 그의 아들인 顏貞이 이것을 河間王에게 바쳤다. 18章으로된 이 孝經은 글씨체가 漢代에 통용되던 隸書體로 되어 있어 이를 「今文孝經」이라 부른다.

「孝經」의 저작시기에 대해서는 後漢 蔡邕의 「明堂論」에 魏의 文侯의 「孝經傳」이 인용되어 있으므로 이미 전국시대부터 「孝經」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孝經傳」은 전해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또한 「呂氏春秋」의 <審微>에 「孝經」의 <諸侯章>을 인용한 것도 「孝經」이 전국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宋代에 이르러서는 刑昺이 疏를 써서 「孝經正義」를 만들고 그 뒤에는 司馬光이 「古文孝經指解」를 지었다.²⁰⁾ 또한 朱熹는 「古文孝

14) 「漢書」 <藝文志> 孝經類. “孝經者 孔子爲曾子陳 孝道也.....”

15) 金學主(2006), 24.

16) 朴一峰(1989), 15.

17) 「孝經刊誤」 “孝經 夫子曾子問答之言 而曾子門人記之也.”

18) 李世烈, 「漢書藝文志」(서울: 자유문고, 1995), 112.

19) 李世烈(1995), 112.

20) 金學主, 35.

經』에 근거한 孝經刊誤 를 지었고 元의 董鼎은 朱熹의 「孝經刊誤」를 바탕으로 「孝經大義」를 편찬하였다.²¹⁾

3.1.2.2 국내 전래

「孝經」이 정확히 언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시대에 시험의 한 과목으로 채택한 것²²⁾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국내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국립교육기관인 國學이 있었다. 讀書三品科는 일종의 관리 선발제도로 유교정치사상에 입각한 정치운영을 목적으로 國學 내에 설치하였다. 학생들을 유교경전의 독해능력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는데 이 성적을 관리임용에 참고하였다. 이 중 「孝經」은 모든 직급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었으며 삼국시대에는 이미 「孝經」이 전래되어 국가에서 이를 장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高麗史」에도 「孝經」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이는데 예종 때의 기록을 보면²³⁾, 고려시대에서도 「孝經」을 국학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정해 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孝經」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이는데 太宗代에 사간원에서 인재등용방법의 개선을 위해 상소를 올린 내용²⁴⁾ 중에도 「孝經」이 언급되고 있다.

21) 「孝經大義」跋. “宋朱子始爲刊誤又次其經傳.....繼以鈔鄱陽董氏爲之註釋.....”

22) 三國史記 卷十 <新羅本紀十> 元成王. “四年, 春, 始定讀書三品 以出身 讀春秋左氏傳 若禮記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前祇以弓箭選人 至是改之.”

23) 高麗史」卷74 志 卷第28 選舉2 學校 國學. “凡經 周易尙書周禮禮記毛詩春秋左氏傳公羊傳穀梁傳 各爲一經 孝經論語 必令兼通 諸學生課業 孝經論語 共限一年 尙書公羊穀梁傳 各限二年半 周易毛詩周禮儀禮 各二年 禮記左傳 各三年 皆先讀孝經論語 次讀諸經 并筭 習時務策 有暇兼須習書 日一紙 并讀國語說文字林三倉爾雅.”

24) 「太宗實錄」卷1 太宗 4年 8月 己丑條.

이처럼 한국은 예로부터 효가 고유사상임에 동시에 효 교육을 통한 全人教育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孝經」은 국내에 전래 이후로 유교윤리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3.1.2.3 내용과 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효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부모가 물려준 신체의 보전에서부터 그의 행적에 관한 후세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효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효는 天子·卿大夫·庶人 등 모든 신분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윤리 규범임을 밝히고 있으며 효가 개인 윤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윤리에 이르는 기본 윤리임을 나타내고 있다.

「古文孝經」과 「今文孝經」은 체제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古文孝經」은 22장으로 되어 있으며 「今文孝經」은 18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古文孝經」이 「今文孝經」보다 많지만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古文孝經」에는 22자로 된 第19章 ‘閨門章’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今文孝經」 第6章 ‘庶人章’은 「古文孝經」에서 第6章 ‘庶人章’과 第7章 ‘孝平章’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今文孝經」의 第9章 ‘聖治章’을 「古文孝經」에서는 第10章 ‘聖治章’, 第11章 ‘父母生績章’, 第12章 ‘孝優劣章’으로 나누어 놓았다.

宋의 朱熹는 「孝經」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孝經刊誤」를 지었는데 이후 元의 董鼎은 이에 근거하여 그 설을 정리하고 주석을 붙여 「孝經大義」를 지었다.²⁵⁾ 이후 「孝經大義」는 성리학파의 대표적인 孝經註釋書가 되었으며 한국에서 간행된 「孝經」도 대부분 「孝經大義」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체제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古文孝經」·「今文孝經」·「孝經刊誤」·「孝經大義」의 내용 구성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5) 「孝經大義」跋. “宋朱子始爲刊誤又次其經傳.....繼以肥鄱陽董氏爲之註釋.”

<표 1> 「古文孝經」·「今文孝經」·「孝經刊誤」·「孝經大義」의 내용 비교

古文孝經	今文孝經	孝經刊誤	孝經大義
第 1章 開宗明義章	第 1章 開宗明義章	經 1章	經 1章
第 2章 天子	第 2章 天子		
第 3章 諸侯章	第 3章 諸侯章		
第 4章 卿大夫章	第 4章 卿大夫章		
第 5章 士人章	第 5章 士人章		
第 6章 庶人章	第 6章 庶人章		
第 7章 孝平章			
第 8章 三才章	第 7章 三才章	傳之 3章	傳之 3章
第 9章 孝治章	第 8章 孝治章	傳之 4章	傳之 4章
第10章 聖治章	第 9章 聖治章	傳之 5章/傳之 6章	傳之 5章
第11章 父母生績章			傳之 6章
第12章 孝優劣章			
第13章 紀孝行章	第10章 紀孝行章	傳之 7章	傳之 7章
第14章 五刑章	第11章 五刑章	傳之 8章	傳之 8章
第15章 廣要道章	第12章 廣要道章	傳之 2章	傳之 6章
第16章 廣至德章	第13章 廣至德章	傳之首章/傳之10章	傳之首章
第17章 應感章	第16章 應感章	없음	傳之10章
第18章 廣揚名章	第14章 廣揚名章	傳之11章	傳之11章
第19章 閨門章	없음	없음	傳之12章
第20章 諫諍章	第15章 諫諍章	傳之12章	傳之13章
第21章 事君章	第17章 事君章	傳之9章	傳之 9章
第22章 喪親章	第18章 喪親章	傳之14章	傳之14章

3.2 조선시대 「孝經」의 간행

조선시대에 간행된 「孝經」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宣祖 9年(1576)의 「攷事撮要」에서부터 1840年頃에 편찬된 「各道冊板目錄」에 이르는 각종 冊板目錄에 나타난 「孝經」을 조사하여 그 시대별·지역별 간행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사한 책판목록 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

3.2.1 書目上의 기록

3.2.1.1 16世紀의 冊板目錄

① 攷事撮要(1576年)

이 책은 宣祖 9年(1576)에 乙亥字鑿刻本으로 찍은 책이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노정을 적은 <八道程道>를 살펴보면 黃海道の 遂安, 江原道の 進陽, 三陟, 全羅道の 錦山, 全州, 井邑, 寶城, 慶尙道の 安東, 善山, 慶州, 咸鏡道の 會寧에 「孝經」의 冊板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② 攷事撮要(1585年)

이 책은 宣祖 18年(1585)에 간행한 木板本이다. 대체로 1576년의 「攷事撮要」와 같으나 全羅道の 玉果, 羅州, 綾城, 昆陽, 巨濟, 平安道の 平壤에 「孝經」의 冊板이 추가되었다.

③ 攷事撮要(1585年)

宣祖 18年(1585)에 간행한 木版本을 베껴 쓴 것인데, 책판 소장 현황은 1585년의 木板本과 거의 같으나 慶尙道の 盈德에 「孝經」의 冊板이 추가되었다.

3.2.1.2 17世紀의 冊板目錄

① 攷事撮要(1613年)

이 책은 光海君 5年(1613)에 訓練都監字로 찍은 것으로 ‘書冊印紙數’에 “孝經 大義 紙 一卷 十二張”이라는 기록이 있다.

② 攷事撮要(1636年)

이 책은 戊申字本으로 간기가 나와 있지 않으나 仁祖 13年(1636) 1月 30日의 跋文으로 그 시대를 추정할 수 있다. 1613년의 訓鍊都監字本과 마찬가지로 <書冊印紙數>에 “孝經大義 紙 一卷 十二張”이라는 기록이 있다.

③ 古書冊板有處攷(1700年頃)

원본은 전해지지 않으며 청색 미농 패지 12장에 쓴 것으로 ‘昭和十四年八月十二日書’라는 筆寫記를 통해 1939년에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록된 책을 미루어 보아 1700년경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安東에 “孝經 注紙 拾張 墨半丁”이라는 기록과 善山에 “孝經 壯紙 一貼拾貳張”이라는 기록이 있다.

3.2.1.3 18世紀이후의 冊板目錄

① 慶尙道冊板(1730年頃)

筆寫本 1책으로 되어 있으며 慶尙道の 21개 고을의 冊板을 기록한 것이다. 金海에 “孝經大義 壯紙三卷六張二折”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興海에 “孝經 一卷十二張二折”이라는 기록이 있다.

② 冊板置簿冊(1740年頃)

英祖 16年頃(1740)에 필사한 것으로 全羅道, 慶尙道, 咸鏡道 등 7개도의 고을 별 책판목록과 인출 시 소요되는 종이의 양을 수록하고 있다.

孝經類는 南原과 咸鏡監營에 「孝經大義」가 있으며, 興海에는 「孝經」이 있다.

③ 芸閣冊都錄(1760年頃)

1760년경에 校書館에서 편찬한 것으로 敎서관의 장서목록이나 敎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판들을 수록하고 있다. <冊板都錄>에 서명과 소장하고 있는 冊板

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孝經大義 拾玖枚”이라는 기록이 있다.

④ 各道冊板目錄(1840年頃)

編者를 알 수 없는 필사본으로 권수제 아래에 ‘道光庚子篇’이라는 글로 보아 憲宗 6年(1840)頃에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京畿道, 江原道, 忠淸道, 黃海道, 全羅道, 慶尙道, 平安道の 7개 도와 각 군에 있는 책관을 기록한 것이다. 내용으로는 서명과 책수, 刊缺여부에 대한 註記 그리고 1부를 인쇄하는데 드는 종이의 수량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泰仁에 “孝經 容入紙二卷十九張”이라는 기록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冊板目錄 외에도 16世紀에서부터 19世紀에 이르기까지 각종 冊板目錄에 나타난 孝經類를 조사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孝經類는 서명별로 「孝經」, 「孝經大義」, 「孝經諺解」, 「孝經大文」의 4종이 보인다. 그러나 「孝經大義」는 서명을 흔히 「孝經」이라고만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명만으로는 「孝經」과 「孝經大義」의 구분이 쉽지 않다. 특히 조사한 결과 壬辰倭亂 이후의 기록에서는 「孝經」과 「孝經大義」의 書名이 같이 쓰이고 있으나 그 이전의 기록에서는 모두 「孝經」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로 이 시기의 책관이 모두 「孝經」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에 수록된 책관 중 慶尙道 興海에 있는 「孝經大文」은 간행기록이나 현존하는 실물자료가 없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興海의 이전에 소장되었던 책관으로 미루어 볼 때 孝經 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조선 전시대를 통틀어 校書館을 포함해 京畿道 1, 江原道 2, 慶尙道 6, 忠淸道 1, 咸鏡道 2, 全羅道 17, 平安道 1, 黃海道 2 등 전국 32곳에 걸쳐 간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기별로 보면 壬亂 이전에는 간행처가 18곳이었으나 壬亂 이후에는 10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있으나 壬亂을 겪으면서 많은 수가 燒失된 것 역시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책관목록에 나타난 孝經類의 지역별·시기별 간행의 특징은 <표 2>, <표 3>과 같다.

<丑 2> 地域別 刊行 孝經類(1) - 京畿·江原·慶尙·忠清·咸鏡 地域

冊板 目錄	京畿道		江原道			慶尙道						忠清道		咸鏡道			
	校書館	全計	三陟	進陽	全計	慶州	金海	善山	安東	盈德	興海	全計	清州	全計	咸營	會寧	全計
攷事撮要 (1576)		-	孝經	孝經	2	孝經		孝經	孝經			3		-		孝經	1
攷事撮要 (1585年)		-	孝經	孝經	2	孝經		孝經	孝經	孝經		4		-		孝經	1
攷事撮要 (1613年)	大義	1			-							-		-			-
攷事撮要 (1636年)	大義	1			-							-		-			-
攷事撮要 (1674年)	大義	1			-							-		-			-
古書冊板 有處攷 (1700年頃)		-			-			孝經	孝經			2		-			-
慶尙道冊板 (1730年頃)		-			-		大義				孝經	2		-			-
攷事撮要 (1734年頃)	大義	1			-							-		-			-
冊板置簿冊 (1740年頃)		-			-						孝經	1		-	大義		1
三南所藏 冊板 (1743年頃)		-			-							-	孝經	1			-
諸道冊板錄 (1750年頃)		-			-							-	孝經	1	大義		1
完營冊板 目錄 (1759年頃)		-			-							-	孝經	1	大義		1
嶺海列邑 所在冊板 目錄 (1760年頃)	大義 (芸閣冊 都錄)	1			-		大義				大文	2		-			-
古冊板 有處攷 (1780年頃)		-			-			孝經	孝經			2		-			-
各道冊板 目錄 (1840年頃)		-			-							-		-			-
地域別 冊板數	大義 5	大義 5	孝經 2	孝經 2	孝經 4	孝經 2	大義 2	孝經 4	孝經 4	孝經 1	孝經 2 大文 1	孝經 13 大義2 大文1	孝經 3	孝經 3	大義 3	孝經 2	孝經 2 大義 3

朝鮮時代 「孝經」의 刊行과 그 刊本

<표 3> 地域別 刊行 孝經類(2) - 全羅·平安·黃海 地域

冊板 目錄	全羅道											平安道		黃海道		時期別 冊版數	
	巨濟	昆陽	鎭山	羅州	南原	綾城	寶城	玉果	全州	井邑	泰仁	小計	平壤	小計	遂安		小計
攷事撮要 (1576)			孝經				孝經	孝經	孝經			4		-	孝經	1	孝經 11
攷事撮要 (1585年)	孝經	孝經	孝經	孝經		孝經	孝經	孝經	孝經			9	孝經	1	孝經	1	孝經 18
攷事撮要 (1613年)												-		-		-	孝經大義 1
攷事撮要 (1636年)												-		-		-	孝經大義 1
攷事撮要 (1674年)												-		-		-	孝經大義 1
古書冊板 有處放 (1700年頃)												-		-		-	孝經 2
慶尙道冊板 (1730年頃)												-		-		-	孝經 1 孝經大義 1
攷事撮要 (1734年頃)												-		-		-	孝經大義 1
冊板置簿冊 (1740年頃)					大義							1		-		-	孝經 1 孝經大義 2
三南所藏冊板 (1743年頃)												-		-		-	孝經 1
諸道冊板錄 (1750年頃)												-		-		-	孝經大義 2
完營冊板目錄 (1759年頃)					大義							1		-		-	孝經大義 3
嶺湖列邑所在 冊板目錄 (1760年頃)												-		-		-	孝經大義 2 孝經大文 1
古冊板有處放 (1780年頃)					大義 諺解							2		-		-	孝經 2 孝經大義 1 孝經諺解 1
各道冊板目錄 (1840年頃)										孝經		1		-		-	孝經 1
地域別 冊板數	孝經 1	孝經 1	孝經 2	孝經 1	大義 3 諺解 1	孝經 1	孝經 2	孝經 1	孝經 2	孝經 2	孝經 1	孝經 13 大義 3 諺解 1	孝經 1	孝經 1	孝經 2	孝經 2	합 계 孝經 36 孝經大義 15 孝經諺解 1 孝經大文 1

* 大義: 孝經大義, 諺解: 孝經諺解, 大文: 孝經大文
 ※ '時期別冊版數'는 <표 2>와 <표 3>을 합산한 결과임.

3.2.2 「孝經」의 간행과 刊本

孝經 은 不分卷 1冊의 木板本으로 되어 있다. 여러 판본 중에 尹孝孫이 編한 것이 있는데, 底本刊記에는 成宗 6年(1475)에 全州府에서 開板한 것²⁶⁾으로 되어 있고, 刊記는 中宗 25年(1530)에 南原府에서 重刊한 것²⁷⁾으로 되어 있다. 그의 대부분의 판본은 간기가 없어 간행시기를 자세히 알 수 없다.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孝經」의 간행기록을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實錄의 기사에 따르면 世宗 5年(1423)에는 서적의 수가 적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사하여 보고 있으므로 鑄字所에서 「老乞大」, 「朴通事」, 「前後漢」, 「直解孝經」 등을 印出하게 하였으며²⁸⁾ 世宗 11年(1429)에는 「小學」은 많이 보지만 孝經은 그렇지 않으므로 經筵의 句解孝經을 내어 鑄字所로 하여금 250秩을 간행하여 반포하게 하였다.²⁹⁾ 그 다음으로 「孝經」의 底本刊記를 통해 成宗 6年(1475)에 全州府에서 「孝經」을 開板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中宗 16年(1521)에는 大字로 인쇄된 「孝經」 30건과 小字로 인쇄된 「孝經」 30건을 文武樓에서 찾아 大內로 들이게 하였는데 中字로 인쇄된 책만 있으므로 大字로 30건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小字로 된 판본도 30건을 인출하도록 하였다.³⁰⁾ 또한 「孝經」의 刊記를 통해 中宗 25年(1530)에 南原府에서 成宗 6年(1475)에 全州府에서 開板한 판본을 重刊하였다.³¹⁾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孝經」을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여기서 처음 소개하는 것으로 洪武 6年(1373)의 발문이 있는 木板本

26) 同書刊記. “成化十一年乙未全州府 開板.”

27) 同書刊記. “歲在庚寅十二月日南原府重刊.”

28) 「世宗實錄」卷20 世宗 5年 6月 壬申條. “禮曹據司譯院牒呈啓 老乞大 朴通事 前後漢 直解孝經等書 緣無板本 讀者傳寫誦習 請令鑄字所印出 從之.”

29) 世宗實錄 卷43 世宗 11年 3月 戊辰條. “小學講於科舉之時 故儒者皆不得已而讀之若孝經則世之初學 專不讀習 請出經筵句解孝經刊行 以教初學 上曰 然 命左代言許誠曰 可令鑄字所印出二百五十 頒行.”

30) 中宗實錄 卷16 中宗16年 2月 丁亥條. “昨日入內孝經乃中字 而非大字也 其令有板本處三十件急速印出 且小字孝經三十件 并旁求印納 可也.”

31) 同書 卷末刊記.

「孝經」이 있는데 국내에 전존하는 판본 중 간행시기가 제일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의 卷首題는 「孝經」으로 되어 있으며 卷末題는 「孝經纂註」로 되어 있다. 林華甫가 纂註한 것으로 앞부분에는 延祐 3年(1216) 林華甫의 自序와 延祐 4年(1217)의 曹氏進德齋의 서문이 있으며 그 뒤에 唐 玄宗의 서문이 있다. 이어서 공자에서부터 玄宗에 이르는 孝經類의 저자 계통을 도표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는 今文孝經을 중심으로 한 여러 주석서의 저자와 서명을 적고 있으며 「古文孝經」과 「今文孝經」의 구성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이어서 본문이 시작되는데 각 장의 제목 다음에 그 장에 해당하는 孝經正義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며 「孝經」의 각 구절을 쓴 후에 작은 글자로 두 줄씩 註를 달았다. 뒷부분에는 <伊川先生葬說并圖>와 <韓魏公參用古今家祭式>가 합철되어 있다. 卷末에는 당시 寧海郡守인 韓冲浩이 恭愍王 22年(1373)에 쓴 발문이 있는데 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孝經十八章自始至末皆以忠孝爲
言士君子所當先學也今知州
姜公旣受

命至任簿冗之暇輒首古□□□八溪守
白公昭所遺本經僅十三章恨其有
逸後於前副令金公居琪家又得所
遺五章乃合爲今書繼有前佐郎南
公□仲示以先儒喪葬祭式詳校三
家之書出自一轍故并附卷末此□
公之□感所致□公遂□傾□□□
板行□□□□□□□□□□□□
眞補學□可謂大矣予於□乎敬跋
□中正大夫寧海府使韓□冲浩誌
洪武六年癸丑秋八月忘一日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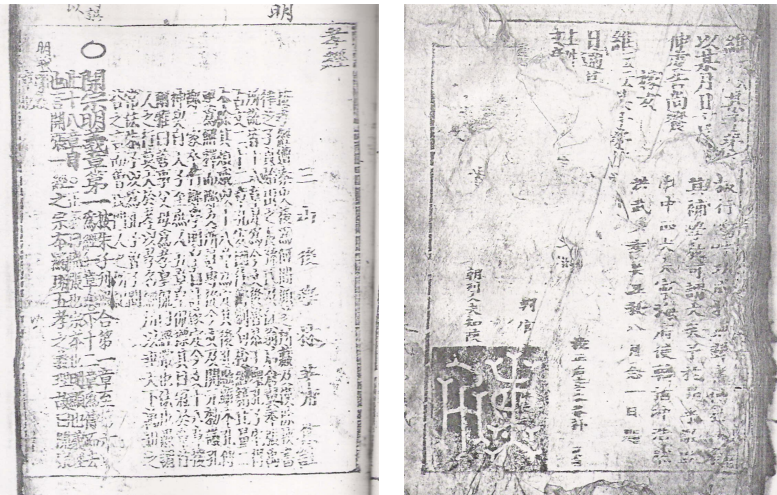
校正后□□□朴 書

判官 □

朝列大夫知陝川

당시 八溪守³²⁾인 白珩가 이 「孝經」을 13장까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前副令 金居琪에게 나머지 5장을 얻어 합치고 佐郎 南永伸의 祭式을 부록으로 붙여 간행하였다고 한다. 다른 곳에서 부족한 부분을 구해 이 판본을 간행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전에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형태사항으로 邊欄은 四周單邊이며 版口는 上下大黑口로 되어 있다. 어미는 上下下向黑魚尾이며 系線은 없다. 행자수는 11行 22字이며 작은 글자로 두 줄씩 註가 있다. 半匡의 크기는 세로가 18.4cm, 가로가 12.3cm이다. 판의 마모가 심하고 글자가 이지러진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아 後刷本으로 보인다.



<그림 1> 洪武 6年(1373)跋 「孝經」의 卷首題面和 跋文

32) 八溪는 草溪의 옛 이름으로 현재 경남 합천군에 속해 있다.

3.3 「孝經諺解」의 성립과 간행

3.3.1 「孝經諺解」의 성립

孝經諺解 는 조선 宣祖 때 孝經大義 에 讀音과 구결을 달아 언해한 책이다. 책 끝에 宣祖 22年(1589) 6月 柳成龍의 <孝經大義跋>이 있는데, 그 내용은 「孝經大義」의 간행과 「孝經諺解」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孝經」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돌보아지지 않음을 탄식한 선조의 명령에 따라 「孝經」와 함께 간행되었다³³⁾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孝經’은 「孝經大義」를 가리키는 것이다.

「孝經諺解」는 「孝經大義」를 그대로 언해한 것이 아니라 朱熹의 「孝經刊誤」의 經 1章과 傳 14章의 본문만 대상으로 하고 대의와 주석은 모두 생략하였다. 언해방식은 經과 傳의 본문에 한글로 독음과 구결을 달고 이어 번역을 실었다.

3.3.2 「孝經諺解」의 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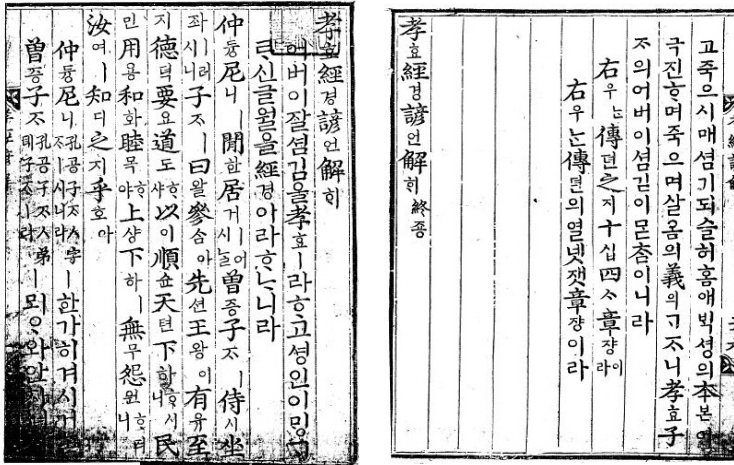
현존하는 「孝經諺解」 중 그 시기에 제일 빠른 것은 일본 尊經閣文庫에 있는 「孝經大義」와 「孝經諺解」의 합본³⁴⁾이다. 宣祖 23年(1590)에 司憲府掌令 張雲翼에게 孝經大義 와 孝經諺解 의 합본 1건을 내린다는 內賜記³⁵⁾가 있어 그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跋文에서는 弘文館으로 하여금 언해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언해의 양식과 판식 등이 다른 經書字本과 비교해서 校正廳의 四書諺解와 같으므로, 이 책도 교정청의 언해사업의 일환으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나타나는 방점과 ‘△’, ‘○’과 같은 문자나 표기법 등이 교정청의 다른 사서언해와 동일하다.

33) 孝經大義 孝經大義跋. “一日 御經筵 與儒臣論治道 因歎孝經之教 久廢於世 又問其註疏之有無 左右以是編聞即蒙宣索覽之嘉賞 將鋟梓以廣其傳 猶慮窮閭愚下之民 未喻其義也 下弘文館 悉解以諺語 使人易曉 且命臣 略其後.”

34) 田川孝三, “庚辰字本 孝經諺解と小學諺解,” 「朝鮮學報」 第27輯(1963), 62-106.

35) 同書 內賜記. “萬曆十八年九月日 內賜司憲府掌令張雲翼孝經大義諺解合部一件.....”

현재 간행연대가 확인되는 가장 빠른 중간본은 顯宗 7年(1666)에 宋浚吉이 받은 내사본³⁶⁾이다. 內賜記에 따르면 康熙 5年(1666)에 議政府左參贊 宋浚吉에게 「孝經諺解 1件을 내린 것³⁷⁾이다. 이 중간본 역시 본문이나 난상주기, 판식이 1590年 내사본과 동일하다. 다만 구결과 언해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1666年 내사본에서는 ‘△’, ‘○’이 나타나지 않으며 구결과 어휘가 달라진다.³⁸⁾



<그림 2> 木板本 「孝經諺解」의 卷首題面과 卷末題面

3.4 「孝經大義」의 성립과 간행

3.4.1 「孝經大義」의 성립

孝經大義 는 宋 董鼎이 朱熹가 지은 孝經刊誤 에 자세한 주석을 붙여 이해

36) 서울대 규장각(古 1328 2).

37) 同書 內賜記. “康熙五年十月二十三日 內賜議政府左參贊宋浚吉 孝經諺解一件.....”

38) 安秉禧, 「國語史資料研究」(서울: 문학과지성사, 1992), 465.

를 도모하고 대의를 밝힌 책이다.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熊禾의 序와 徐貫의 跋이 있는 판본³⁹⁾과 여기에 宣祖 22年(1589)의 柳成龍의 跋을 덧붙인 판본⁴⁰⁾의 두 가지가 유통되었다. 조선시대 유통된 「孝經大義」는 곧 「孝經」을 의미하며 표지명은 대체로 「孝經」으로 되어 있다.

3.4.2 「孝經大義」의 간행

국내에 전해지는 판본은 대부분 木板本이다. 현재 일본 尊經閣文庫에는 大字와 中字, 小字가 모두 활자로 인쇄된 「孝經大義」가 있다.⁴¹⁾ 국내에는 실물이 없어 확인은 어려우나 田川孝三의 논문⁴²⁾에 따르면 尊經閣本 「孝經大義」는 宣祖 23年(1590)의 內賜記⁴³⁾가 있어 그 간행시기를 알 수 있다. 또한 판식은 四周雙邊에 半匡은 25.2×18.1cm이고 行字數는 大字는 5行 10字, 中字는 10行 19字, 小字는 雙行 19字이다. 여기서 大字는 特大字, 中字, 小字는 庚辰字⁴⁴⁾로 되어 있다⁴⁵⁾고 한다. 大字는 ‘孝經大字’ 또는 ‘孝經大義字’라고 하는데 이 활자로 인쇄한 다른 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孝經大義」의 版本

版本名	版本	形態事項	刊行年	刊記 및 內賜記	所藏處
宣祖 23年 內賜本	活字本	四周雙邊, 半匡: 25.2×18.1cm, 有界, 大字5行10字, 中字10行19字,	宣祖23年 (1590)	內賜記: 萬曆18年9月日	尊經閣 文庫
仁祖 9年 內賜本	木板本	四周雙邊, 半匡: 24×17cm, 有界, 大字5行10字, 中字10行19字, 上下內向四瓣花紋黑魚尾	仁祖9年 (1631)	內賜記 崇禎四年十月日..	규장각

39) 서울대 규장각(奎 1819),(古 1328 3) 등.

40) 고려대 도서관(만송A10A2A), 단국대 울곡기념관(고180.7-효102자) 등.

41) 尹炳泰, “孝經大義 大字考,” 『도협월보』 Vol. 15, No. 10(1974), 250-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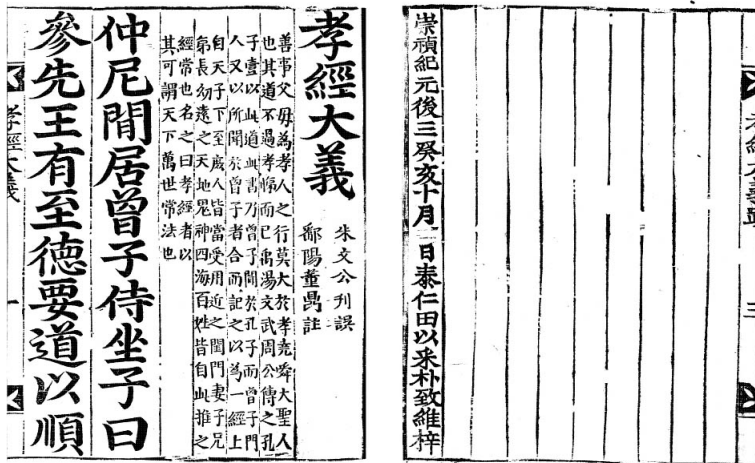
42) 田川孝三, “庚辰字本 孝經諺解と小學諺解,” 『朝鮮學報』 第27輯(1963), 62-106.

43) 內賜記, “萬曆十八年九月日 內賜司憲府掌令張雲翼孝經大義諺解合部一件.....”

44) 庚辰字는 再鑄甲寅字와 再鑄乙亥字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45) 田川孝三, 63.

顯宗 7年 內賜本	木板本	四周雙邊, 半匡: 24×17cm, 有界, 大字5行10字, 中字10行19字, 上下內向四瓣花紋黑魚尾	顯宗7年 (1666)	內賜記: 康熙五年十月二十三日...	규장각
英祖 13年 內賜本	木板本	四周雙邊, 半匡: 22.2×17.2cm, 有界, 大字5行10字, 中字10行19字, 上下內向四瓣花紋黑魚尾	英祖13年 (1737)	內賜記: 乾隆二年十月十八日 侍講院	규장각
英祖 30年 輔養廳重刊本	木板本	四周單邊, 半匡: 24.6×17 cm, 有界, 大字5行10字, 中字10行19字, 上下內向四瓣花紋黑魚尾	英祖30年 (1754)	甲戌輔養廳重刊.	국립 중앙 도서관
純祖 3年 泰仁田以采朴致維本	木板本	四周單邊, 半匡: 24.6×17 cm, 有界, 大字5行10字, 中字10行19字, 上下內向四瓣花紋黑魚尾	純祖 3年 (1803)	崇禎紀元後三癸亥十月日 泰仁田以采朴致維梓	국립 중앙 도서관
純祖 19年 春坊藏板本	木板本	四周雙邊, 半匡: 22×17.2cm, 有界, 大字5行10字, 中字10行19字, 上下內向四瓣花紋黑魚尾	純祖19年 (1819)	己卯(1819)新刊春坊藏板	규장각
開國 493年 廣印寺重刊本	新式活字	四周雙邊, 半匡: 19.9×11cm, 有界, 大字5行10字, 中字11行19字, 上下內向四瓣花紋黑魚尾	1884年	開國四百九十三年 廣印社公所刊行	원광대 도서관



<그림 3> 泰仁田以采朴致維刊行版「孝經大義」의 卷首題面과 刊記

4. 결 론

이상과 같이 「孝經」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주석서의 편찬과 간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孝經」이 국내에 전래된 시기와 경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삼국시대에 이미 국가교육기관의 필수교육 과목으로 「孝經」을 채택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최소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전래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책판목록과 서책목록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국내에 전래된 孝經類는 「孝經」과 「孝經大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孝經大義」는 주자의 뜻이 담긴 것으로 성리학이 중심이던 조선사회에서 주로 많이 읽혔다. 따라서 기록에서 나타나는 「孝經」은 대부분 「孝經大義」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孝經類의 간행지역은 중앙관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간행되었다.

(3) 이 논문을 통해 소개한 자료로 국내에 전존하는 孝經 중에서 그 간행시기 제일 빠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恭愍王 22年(1373)의 跋文이 있는 「孝經纂註」이다. 이 판본은 서문과 내용으로 볼 때 중국에서 간행되어 국내로 전래되었고 이후 국내에서 重刊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문의 기록을 통해 그 이전부터 국내에서 「孝經」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이어서 한국의 효 사상과 관련된 연구로 개인의 효행을 다루는 문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효행서는 중국의 예를 많이 인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고유의 사상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문의 효행을 중심으로 다룬 효행록이나 개인 문집에 수록된 효행사실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서적 뿐 만 아니라 조상의 묘지와 관련된 山訟, 孝子の 추천·포상 관련 문서와 같이 한국인의 실생활을 담고 있는 고문서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효 사상이 반영된 출판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孝經」

「孝經大義」

「孝經諺解」

「高麗史」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金學主. 新完譯 孝經. 서울: 明文堂, 2006.

朴一峰. 孝經. 서울: 育文社, 1989.

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_____.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李種殷 譯. 朝鮮道教史. 서울: 普成文化社, 1977

李熙德. 高麗儒教政治思想의 研究. 서울: 一潮閣, 1984.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田溶新 譯. 完譯 日本書紀. 서울: 一志社, 1989.

최준하. 孝에 대한 儒·佛 經典의 譯註 및 比較考察. 서울: 두남, 2003.

韓泰源. 韓國의 孝와 孝行. 서울: 南鳥, 1990.

김준우. “高麗의 官學과 「孝經」.” 도서관학논집, 제3권(1976). 79-88.

金海正. “孝經諺解 研究.” 진주우석대학 논문집, 8집(1986). 3-29.

노태조. “孝經과 恩重經의 對比的 考察.” 語文研究, 第28輯(1996). 191-215.

閔丙俊. “孝經諺解」의 漢字釋.” 「국어교육, 제61집(1987). 269-282.

여찬영. “효경언해의 번역비평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27집(2003). 197-222.

_____. “효경언해의 원문에 대한 연구.” 「語文學, 84호(2004). 99-122.

李熙德. “韓國에 있어서 孝思想의 形成과 그 展開.” 韓國思想史學, 第10集(1998). 142-165.

_____. “高麗時代 孝思想의 展開.” 歷史學報, 第55輯(1972). 37-72.

정호운. “朱子 『孝經刊誤』와 그 성격.” 「동방학지, 제116호(2002). 71-106.